



조간 제 8017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음력 12월 12일)

행정 통합의 최대 관문…시·도의회 동의에 달렸다

내달 임시회서 의견 청취 후 찬반 투표로 결정
통합의회 의원 정수·청사 위치 쟁점화 가능성
도의회, 시·군의원 간담회…지역 불균형 우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시·도의회 동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 관련기사 2·8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시·도의회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시·도의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지역 정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 인센티브 등을 토대로 400여 조항에 400개 안팎의 특례가 담긴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최종 법안이 완성된다.

입법지원단은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한다. 그간 쟁점이었던 명칭·청사·특별회는 대부분 합의됐고, 교육자치와 통합의회 의원 정수·통합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이전 대상 정부 부처와 기관 명문화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뒤 민주당 당론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

음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의회가 통합안을 가결, 국회 문턱만을 남겨놓게 되면서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도의회에 긴급 의견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올려 의회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다음달 2~9일, 도의회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며, 이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투표로 처리할 예정이다.

통합의회 구성 방식, 의원 정수 등에서 양 시·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의회 간 이견은 이날 전남도의회가 개최한 시·군의회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도 표출됐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의회 의원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 행정통합 후 발생 가능한 각 지역의 우려되는 사항이 집중 거론



전남도의회는 29일 전남도청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됐다. 특히 통합 후 광주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동·서부권 균형 문제, 인구수밀지역 지원 대책,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충 되는 조례 정리 등 사전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통합 논의 과정에

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도민의 뜻이 제도에 충실히 담기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시·도의회가 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다"며 "특별법안 당론을 등에 업은 만큼 시·도의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라마다호텔, '롯데' 이름 단다

2곳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내일부터 브랜드 변경 운영

리모델링 통해 시설 등 개선

오너가 자신을 소유하고 인력을 고용해 경영을 하되, 총괄 운영을 체인에 위탁하는 형태다.

특히 최근 롯데호텔이 위탁호텔 운영을 늘리며 자산 소유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행보와 맞물린다.

앞서 롯데호텔은 지난해 미국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 '더 뉴요커 호텔'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더 뉴요커 호텔 바이 롯데호텔'을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롯데호텔 측은 이번 계약을 '리브랜딩' 개념으로 설명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호텔 운영을 이어 받아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상세한 내용은 연내 상반기로 계획된 오픈일에 맞춰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 특급호텔이 유명 호텔의 이름을 달게 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면에 계속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금융위 기금운용심의회서 의결…7500억원 규모 대출지원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선정됐다.

전체 사업비 3조4000억원 가운데 첨단 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이 7500억원을 정기·저리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전남도와 신안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1호 투자처로 전남 신안우

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의결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에 첨단기금이 7500억원 규모로 선·후순위 대출자로서 참여한다. 본격적인 자금 집행은 제반 과정을 거쳐 3분기부터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은행권이 공동 조성한 미래에너지 펀드도 이 사업에 총 5440억원을 지원한다. 2040억원은 출자, 3400억원은 후순위 대출 방식이다.

이 사업은 신안군 우이도 남쪽 해상에 발전용량 390MW(메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390MW는 약 36만가구 사용하는 전력 수준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270MW)보다 많다.

국민성장펀드가 대출자금을 18~19년 장기간 저리로 공급함에 따라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커지고 민간 금융기관 참여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앞으로 3년간 건설 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해저케이블·변전소·설치 선박에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는 등 기자재 대부분에 국산 제품이 활용된다. 특히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신규 건조해 최초 투입할 방침이다.

신안군 주민도 이번 발전사업에 일정 부분 체권투자로 참여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바우처·지역회계 형태로 지급받는 등 성과가 공유된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건설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